

“멋진 언어...사랑해요! 한글”

中·베트남·美 등 250명 전남대 언어교육원서 ‘한글 배우기’

“통신영어·외국어 간판 안타까워”

“판타엔씨, 이번 주말에 뭘 할건가요?” “통우회(동우회·同友會) 사랑들과(사람들과) 싸물노리(사물놀이) 공연(공연)보러 가요”

“제561주년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전 전남대 언어교육원 2층 강의실, 중국·베트남·미국·우간다 등 11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 250여 명이 대학원 등 진학에 앞서 한글을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다.

수업은 ‘구·나’부터 고급 회화수준까지 각자 수준에 맞는 14여 개의 반, 일주일에 5일, 하루에 4시간씩 10주 코스로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은 단계별로 110여 만원을 내고 4단계에 걸쳐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

한국어 교사 입태운(30)씨의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뽀뽀뽀뽀뽀한 글씨체로 정성껏 교재에 받아쓴다. 이해하기 힘든 낱말이라도 자국어로 쓰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옆 사람과 대화하면 금세 자국어가 튀어나온다. 수업을 듣는 10명의 학생 중 8명이 전자수첩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리지안(이건·25)씨는 “한글은 몇 주만 배워도 어떤 단어를든지 금방 읽어낼 수 있어 무척 쉽다”며 “비슷한 단어가 너무나 많아 뜻을 이해하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입씨가 ‘마음을 먹다’의 뜻에 대해 질문하자 학생들은 “마음을 먹기도 해?”라며 의아해 했지만 ‘결심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하자 손뼉을 치며 웃는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흐메드(Tauhid Ahmed·25)씨는 “한글은 참 오묘한 언어다. 무척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것이 한글”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차켜든다. 하지만 ‘얼짱·ㄱ(감사)’, ‘ㅋㅋ(웃는 표시)’ 등 신세대의 인터넷 용어나 이모티콘(emoicon)이 낯설없이 튀어나올 땐 난감한 표정들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판티엔(Pham Thi Yen·여·21)씨는 “인터넷을 하면 내가 배웠던 한글이 아니라 이상하게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가 인기 많더라”며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고 자부하는 한국인들이 멋대로 만들어가며 파괴해버리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거리를 뒤엎은 외국어 간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미국 미주리 대학을 졸업한 다니엘(Daniel Ruberson·24)씨는 “밤에 시내를 나가면 뉴욕인지 동경인지 헷갈리기도 한다”며 “영어 불보다는 한글 불이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림실기자 kps@kwangju.co.kr



‘제561주년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전남대 언어교육원 강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안군청 공무원들

출장비 수천만원 횡령

목포지청 23명 적발

출장비를 횡령한 신안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일 허위로 타낸 출장비를 횡령한 신안군 전 기획예산실장 최모(57·4급), 전 예산계장 조모(55·6급)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58·5급)씨 등 횡령에 관련된 다른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비위사실을 신안군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안군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를 지급받거나, 다른 부서에 허위 출장비 또는 실제 출장비를 신청토록 한 다음 출장비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의 공통 여비를 횡령한 혐의다.

또 2002년 11월부터 기획예산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식자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을 한 후 카

드 결제를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으로 42회에 걸쳐 2천1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획예산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1천여만원으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매년 50%에 달한다.

검찰은 그러나 공통여비 횡령에 관련된 예산담당 실무자 3명과 다른 부서 하위직 공무원 18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고 ▲부족한 출장비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획예산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불입건 조치하고, 군이 자체 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또 ‘카드깡’에 관련된 식당업자 11명도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고 중요 고객인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점을 감안, 불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빼내 조정한 자금을 명절 떡값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액 현금으로 사용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대법, 사고 난뒤 신원 정확히 안알리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나 부모 등 사고 관련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시속 20km로 차를 몰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짜리 여아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우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가 통증

을 호소하자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준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자신의 명함을 냈다.

그러나 곧 명함을 돌려받아 뒷면에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적은 뒤 그 부분을 찢어 챙겼지만 명함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문이 닫혀있자 당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합장 선거 금품의혹

당선자 자택 압수수색

광주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광주시 A농협조합장 B씨와 조직책 C씨 등 2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

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선거운동원 C씨를 통해 조합원 D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보성 연쇄살인범 피살자 휴대전화 통화 실수한 듯 경찰 강력반 ‘의문의 전화’ 놓쳤다

보성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대학생 추모(여·20)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추씨의 휴대전화로 누군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족들은 또 추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4차례나 119에 전화를 했는데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8일 피해자 유족들이 조화한 추씨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숨진 지 일주일인 지난 9월7일 누군가 추씨의 휴대전화로 보성경찰서 강력팀에 17초간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관의 휴대전화에는 지난달 3일이 이미 시신으로 발견된 추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됐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추씨 등 대학생 2명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된 뒤 행적

조사를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추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건 인물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어부 오모(70)씨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는 통화 내역을 뽑을 필요가 없어 지난 7일자 통화기록 사실이 누락된 것 같다”며 “오씨도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뺑소니 두 차례 30대 실형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또다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국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달아난 점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326) 김장동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KCC참고, 시스템정보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시스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편의점 알바 취업 돈 출처 달아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위장 취업한 20대가 돈을 출처 달아났다 경찰에 달미.

○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정모(22·담양군)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1시59분께 여주시 미평동 A편의점 금고에 보관된 현금 600여만원과 상품권·담배 등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추측 연휴 동안 은행이 문을 닫아 매상을 입금할 수 없다는 점을 달아 지난달 초 양모(여·35)씨의 편의점에 미리 취업했으며, 발행 당일에는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정씨는 훔친 돈으로 경기도 시흥에 원룸을 얻은 뒤 또 다른 편의점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다가 IP 추적으로 소제가 들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p>황주출판</p> <p>한글·한자·영어·수학·과학·사상·역사·문학·예술·체육·음악·미술·기술·직업·취업·자기개발·심리·철학·종교·정치·경제·사회·환경·건강·안전·여행·취미·스포츠·음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인터넷·영어·수학·과학·사상·역사·문학·예술·체육·음악·미술·기술·직업·취업·자기개발·심리·철학·종교·정치·경제·사회·환경·건강·안전·여행·취미·스포츠·음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인터넷</p> <p>10월 10일 발매 예정</p> <p>549,000</p> <p>599,000</p> <p>649,000</p>	<p>황주출판</p> <p>한글·한자·영어·수학·과학·사상·역사·문학·예술·체육·음악·미술·기술·직업·취업·자기개발·심리·철학·종교·정치·경제·사회·환경·건강·안전·여행·취미·스포츠·음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인터넷</p> <p>10월 10일 발매 예정</p> <p>429,000</p> <p>440,000</p> <p>339,000</p>	<p>황주출판</p> <p>한글·한자·영어·수학·과학·사상·역사·문학·예술·체육·음악·미술·기술·직업·취업·자기개발·심리·철학·종교·정치·경제·사회·환경·건강·안전·여행·취미·스포츠·음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인터넷</p> <p>10월 10일 발매 예정</p> <p>549,000</p> <p>599,000</p> <p>649,000</p>	<p>황주출판</p> <p>한글·한자·영어·수학·과학·사상·역사·문학·예술·체육·음악·미술·기술·직업·취업·자기개발·심리·철학·종교·정치·경제·사회·환경·건강·안전·여행·취미·스포츠·음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인터넷</p> <p>10월 10일 발매 예정</p> <p>549,000</p> <p>599,000</p> <p>649,000</p>
---	---	---	---